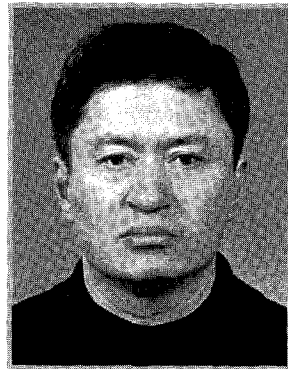


항생제 내성 책임을 더 이상 축산물에 전가시키지 말자

국가별 항생제 사용량을 단순한 외형상의 비교가 아니라 정밀비교(국토대비, 가축 수 대비, 항생제 섭취량)를 하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비해 항생제 사용량이 30~40%에 불과하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다. 따라서 항생제의 사용을 수의사 처방에 의한 약제사용을 비롯해서 농림부가 제시한 항생제 절감방안을 기초로 해서 합리적이고도 점진적으로 대폭 줄여서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및 환경단체의 파상적인 언론 공세에 대한 근원적인 구실을 제거함과 동시에 이미 국제적 대세로 정착된 친환경 축산을 실천해야 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덴마크를 비롯한 EU국가에서는 과학적인 논리보다는 정치적인 논리가 더 강한 예방주의 원칙을 적용된 성장촉진용 항생물질(AGPs)의 사용을 완전 중지시키면 항생제 내성문제는 해결되어 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현재 EU국가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치료용 항생제의 남용을 비롯한 예기치 못한 압초를 만나 살모넬라, 대장균, 캄필로박터와 같은 식중독의 주요 원인 균에 대한 치료용 항생제의 내성율이 AGP 사용 중지 후에 갈수록 증가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보고 되



이 인 호
글로벌 네트워크 이사

고 있다(DANMAP, 2004).

이에 따라, 현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의 모색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향후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와 주는 교훈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덴마크의 경우, 현재는 KBS 1 TV에서 방영된 환경스페셜과 식품의약품안전청(KFDA)에서 2004년 5월에 발간한 홍보용 만화에서와 같이 항생제 내성관리의 모범국가가 아니라 치료용 항생제의 내성을 증가와 전쟁을 치루고 있는 국가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고, 덴마크 정부(2004)와 WHO(2003)의 통

계수치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및 KFDA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국가 산하기관은 덴마크의 장구균을 비롯한 지표세균에 대한 항생제 내성이 감소를 보이던 1998년 이전 상황과 2000년 이후 현재의 상황은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마치 과거의 사실이 현재도 유효한 사실인양 신뢰성이 떨어지는 자료를 제시하여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서 축산업계에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여 이러한 행위가 시정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일부 유기축산 신봉자들과 같이 국익을 고려치 않고 유토피아적인 주장을 하여, 동물용 항생제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일반 국민들의 감성만을 자극하여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축산업계를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압박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소비자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홍보함으로써 공존의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축산업계가 EU국가에서 일어난 현상에서 교훈을 얻어 우리는 EU국가보다 시행착오를 덜 겪고 소비자들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안전 축산물의 생산이 보장되는 축산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이 다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대립과 반목보다는 상호협력 및 보완체제를 구축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의료계는 항생제 내성을 증가에 상

당한 책임이 있음은 너무도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힘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책임을 축산업계에서 사용하는 항생제로 전가시키는 언론플레이를 하여 축산업계의 관련 종사자들을 궁지로 몰고 있다. 그러나 가축에서 사용되는 항생제가 사람의 내성을 증가에 전적으로 기여한다는 것 또한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는 것은 의료계도 인정하는 부분이기도하다. 따라서, 이제는 축산관련 종사자들도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되, 소극적인 자세를 탈피하여 거대 언론이라 할지라도 신뢰도가

매우 낮은 사실이나 과학적 근거가 빈약한 사실에 대해서는 호주의 AVCARE (2003)을 비롯한 과학적 반론 근거를 최대한 축적하여 일목요연한 논리를 해당언론의 홈페이지에 집결시켜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축산관련 종사자들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

“

현재, 국내 의료계는 항생제 내성을 증가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은 너무도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힘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책임을 축산업계에서 사용하는 항생제로 전가시키는 언론플레이를 하여 축산업계의 관련 종사자들을 궁지로 몰고 있다.

”

그리하여,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정확히 표현해도 얼마든지 축산업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생제 무침, 항생제 조림, 항생제 구이라는 상식을 벗어나는 극단적인 용어의 선택과 덴마크에 대한 비과학적인 정보를 국내실정과 대비시켜 국민들에게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한 “항생제 가축오염, 바로 알고 바로 말하자?”라는 사실이 국내 최대의 보수 일간지에 게재되어 축산업계 전반에 걸쳐서 충격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희**